

사실 자체는 영원한 피안에 있다

| 용타스님 |

누구나 이미 체험하고 있는 석가모니의 존재 상태, 돈망에 대해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7부)

038. 기초수(基礎受)

자, 이 순간, 어떠한가? 뭐, how are you? 정도로 생각하고 묻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우리 식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 이 순간 어떠세요? 당신이 상대방으로부터 How are you? 혹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받았을 때 당신 속에 그냥 기본적으로 잡혀들 수 있는 의식(意識) 상태, 그것이 기초수(基礎受)이다. 기분 같은 것, 컨디션 같은 것, 느낌 쪽 마음이다. 문득문득 그 기초수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하고 그게 안 좋으면 얼굴이 일단 밝지 않다.

수(受)란 느낌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수(受)를 고수(苦受), 낙수(樂受), 사수(捨受)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 고수란 괴로운 쪽 느낌이고 낙수란 기쁨 쪽 느낌이며 사수란 기쁨도 괴로움도 아닌 담담한 쪽 느낌이다. 12연기에서 일곱 번째 고리가 수(受)이다. 불교인이라면 12연기의 촉-수-애-취-유(觸-受-愛-取-有)가 기억날 것이다. 그런데 수(受)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의 개념인가를 깨닫고 있는 불교인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힘주어 강조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자신의 심신에 흐르는 수(기분, 느낌, 컨디션, 기초수)이다. 12연기 차원의 일곱 번째 단계인 수(受)는 그토록 중대하다. 이에 대하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불교인이라면 대체로 12연기의 과정 중에 [과거이인현재오과(過去二因現在五果)]가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과거이인(過去二因)이란 무명(無明)과 행(行)을 말하고 현재오과(現在五果)란 식(識), 명색(名色), 육입(六入), 촉(觸), 수

(受)를 말한다. 수(受)는 오과(五果) 중 마지막 과정이다. 마지막 과정이라 함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수(受)라는 뜻이다. 곧 수(受) 좋게 하자는 것이 인생이요, 이 순간 수(受, 基礎受)가 좋아야 행복하다는 의미이다. 해탈이니, 묘각이니, 니르바나니 혹은 구원이니 하는 것들이 결국은 수(受) 범주의 이야기요 수(受)의 극점(極點)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순간 깨어 있고 안팎으로 다 공함을 깨닫고 있어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완성인 것이다. 그런데 깨달음이 완성되었다면 깨달은 자로서의 지고한 행복해탈을 삶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문득문득 수없이 불행의 늪에 떨어지곤 한다. 왜일까? 오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이유는 기초수(基礎受)¹⁾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의 컨디션(기초수)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저항한다는 말이다. 저항이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이 상태보다 좀 더 좋았으면...’하는 심리(애취(愛取))이다. 이 심리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한 깨달음이다. 이 저항 심리는 전 인류사에 끈질긴 업이다. 이 끈질긴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그 길은 수용(受容), 오직 수용뿐이다. 이것이 길이다.

수용(受容)이란 팔정도의 정념(正念)이다. 동사섭에서는 수(受)를 수용하는 심리과정을 수관(受觀)이라 한다. 수관을 보다 투철하게 하기 위해서 인과관(因果觀)과知足관(知足觀)을 보태어 해인칠관(海印七觀) 중 전삼관(前三觀)이라는 이름으로 관행(觀行)한다. 왜 이리 복

1) 기초수란 결국 수(受)인데, 수(受)는 다분히 12연기의 이론 정립과정의 이야기 같은 감이 들게 한다. 지금-여기-바로 흐르고 있는 수(受)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초수(基礎受)라는 말을 쓰고 있다.

잡을 떠는가 하는 마음이 얼핏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을 더욱 더 떨어서라도 철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이 순간 자신의 심신에 흐르는 기초수(基礎受)이다. 전삼관(前三觀)을 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사람은 항상 심신의 컨디션(기초수)이 좋을 수만은 없다. 문득 문득 이 순간에 흐르는 느낌이 피로, 감기, 두통, 요통, 어떤 좌절 등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 좋다고 해도 더 좋음에 비하면 덜 좋은 법이다. 그러할 때 <더 좋았으면...>하는 심리가 거의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더 좋았으면...>하는 심리가 바로 중대 병리(病理)라는 점이다. 이 병리(病理) 지양 여하가 영성존에서는 도비도(道非道: 도냐 도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한계인 것이다. 이 병리(病理)를 지양(止揚)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관(受觀: 아무런 분별시비 없이 그대로 바라보기)-인과관(因果觀: 그럴만한 이유를 내 스스로 제공했으니 이리함은 당연한 순리(順理) 아닌가 하고 사유<思惟>함)-지족관(知足觀: 이보다 더 나쁘지 않으니 그나마 감사하지 않는가 하고 사유함)이 길이다. 이 삼관(三觀)을 한동안 관행한다면 기초수(基礎受)가 여여(如如)히 수용되고 깨어있음 내지 아공법공관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어떠한가? 이 글이 이해가 되고 이 글대로 실습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머뭇거리려진다면 알렉산더 왕에게 기하학에 왕도가 없다고 한 디오게네스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검판사 하나만 되려 해도 키높이 정도의 책을 암기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전문 피아니스트가 두 시간짜리 공연을 위해서 6개월여 간 건반을 친다고 하지 않는가! 하물며 마음의 대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039. 이성(理性)의 위력

이 순간 어떠한가? 기초수(基礎受)를 수용하고 아공법공으로 안팎이 놓아진 상태로 깨어있어 보라. 실습량이 높아지다 보면 점점 우주적인 자유감이 확연해질 것이다. 그것이 돈망(頓忘)이요, 제대로의 정견(正見) 정립이요, 응무소주(應無所住)의 의식(意識)이요, 순수의식(純粹意識)이요, 무유정법(無有定法)의 의식이요, 그만큼의 니르바나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토대요, 보살도(菩薩道)의 기 초확립이다. 공부인이라면 최소한 이것이 기 의식으로 확연해져 있어야 공부 초단이라 할 수 있다. 초단이라 하니 낮게 느껴지는가? 바둑 초단은 입신(入神)경지라 하는 9단과 맞겨루는 경지이다.

삼천년 전에 석가모니는 일체의 신비(神秘)를 쓰지 않고 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아라한(阿羅漢)과를 얻게 만들었다. 그런데 21세기까지도 무속적인 신비를 공부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스승시하는 이들이 많은 줄 안다. 어떤 차원의 방편이라는 점에서 통과는 될지 모르나 회심의 미소만 지어질 뿐이다. 연기(緣起)의 이치를 파악하시고 해탈(解脫)과 대자비(大慈悲)를 끌어내신 삼천년 전의 한 영성(靈性) 스승을 떠올리면 신기하기만 하다. 오늘날 그 연기(緣起)의 이치가 모든 과학 분야에서 마스터 키, 만능 키로 쓰이게 될 줄이야!

040. 돈망을 위한 단상들

- 돈망이란 마음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일체의 것에 기대지 않고 있을 때의 의식 상태이다. 곧 그냥 임재(臨在)하는 존재 과정이요 의식이

발전 혹은 타락 이전 차원으로 자적(自適)하는 심리과정이다. 때 묻지 않은 성품을 자성(自性)이라 하고 자성을 자증(自證: 수공, 점두, 경험, 느낌)하는 것을 선불교(禪佛敎)에서는 견성(見性)이라 한다.

- 모든 것(환경 · 몸 · 마음)에 주의를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현실로 체험되는 것, 그것을 붙들라. 아니, 붙들 필요 없이 이미 거기에 있는 그것을 느끼면 될 뿐이다.
- ‘순수 깨어있음의 체험’을 했다고 보자. 불씨를 얻은 썸이다. 이 불씨에 살살 부채질만 하면 된다. 부채질에 따라 불길이 일어난다. 이 불길의 세기가 어느 정도만 넘어서면 삶 전반이 평화로움이다. 부채질이란 아공범공으로 안팎의 모든 염체(念體)를 방하(放下)함이다, 수관(受觀), 인과관(因果觀), 지족관(知足觀) 등의 관행으로 기초수에 걸리지 않음이 그 부채질의 기초요, 팔정도(八正道), 육바라밀(六波羅蜜) 등의 방편을 상황적으로 민첩하게 활용하는 것이 부채질이다.
- 일단 회광반조(回光返照)요, 해인삼매(海印三昧)의 과정이다. 일체의 개념이 사라지고, 방사(放射)에너지가 사라지고, 오직 깨어 있는에 너지만 봄기운처럼 피어오른다.
- 일체의 의존(依存)이 배제된 상태.
- 누구나 이 상태를 이미 체험하고 있다. 오직 체험하고 있음을 몰라

서 유감일 뿐이다. 여기에서 요청되는 것은 이미 그것을 체험하고 있음을 알라는 것이다.

- 가치 규정을 한다면, 그것은 ㉞이다. 좋음이다. 지극히 좋음이다. 고요함이요, 평화로움이요, 성성적적(惺惺寂寂)이요, 트임이요, 머-ㅇ한 듯하나 침예하게 깨어있음이다.
- 순수 깨어있음의 의식 상태를 <옴>이라 이르기로 하자. 옴을 체험하는 삶을 심화시켜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만이 아는 섬세한 즐거움의 의식 영역이 거둬 열려간다. 중요한 것은 <옴>의 기초체험(基礎體驗)이다. 이 기초체험을 삶 속에 일구어내어 시들지 않도록 지키지 않으면 그냥 놓치고 잊힌다. 과거의 습관적(패턴적) 삶의 기운은 햇살을 가리는 구름과 같다. 모처럼 드러난 햇살을 밀려오는 구름이 막아버리듯, 모처럼 의식하게 된 <옴>체험이 과거의 습관성에 의해 묻히기 쉽다. 그래서 <옴>체험의 선행 혹은 후행 작업으로 엄정한 식생활, 엄정한 계율, 참회, 기도, 선정 등의 바라밀이 필요하다.
- 촉이전(觸以前)(?) 내지 개념이전(概念以前)의 체험 상태가 <옴>의 본질이다. 육경(六境)이 육근(六根)에 비쳐지되 개념화가 되지 않는다. 이 체험을 벗어난 관념의 전개는 사변이요 형이상학이다. <옴>을 관념화하면 찬란한 신학, 교학, 형이상학이 될 수 있다. 다소의 형이상학은 허용한다 해도 체험을 놓치면 공허한 희론(戲論)이다.
- <옴>의 체험을 돕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해보자. 즉, 이 순간 육식(六識)은 존재하는데 불현듯 육경(六境)이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라,

그때 느껴짐직한 체험이 <옴 체험>일 수 있다. 상상되는 그 상태는 <꿈 없는 잠>과 같은 상태가 아닌, 침예하게 깨어 있는 상태일 것임은 당연하다.

- <옴>과 <구나>²⁾를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 <옴>과 <구나>는 체험적으로 한 흐름 선상에 있다. 따-ㄱ 끊어 이분법으로 나눈다는 것은 무리이다. <구나>의 단계를 <수동성 구나>, <능동성 구나>, <경험성 구나>, <개념 허용의 구나>로 나눈다면, <옴>과 <수동성 구나>는 넘나들 수밖에 없다. 초보 수행일수록 더욱 그렇다.
- <옴> 수련이 되어감이 비 하여 의식의 분포에 있어 개념이전(概念以前)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임은 당연하다. 평생 개념권에서만 치열하게 살다가 생을 마쳐버린, 절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을 생각해보면 연민이 간다.
- 중생의 의식은 옴으로부터 →있다→좋다→싫다→행동→고통으로 타락해 간다. 이것을 상세하게 열거하면 번뇌구조(煩惱構造)요 십이연기(十二緣起)이다. 옴을 체험하기 위해서 욕구(싫다)할 때와 그냥 가치 평가만을 할 때와를 비교하여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2) <옴>을 감각 이전의 의식 상태라 한다면 <구나>는 감각이 전제되는 의식 상태이다. <옴>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제 일보를 딛는다고나 할까, 객관적 세상을 향해 방긋 문을 연다고나 할까, 아무튼 객체를 수동적으로 개념없이 만난다. 감각 대상인 경계를 받아들임에 있어 수동적으로 허용되는 구나를 <수동성구나>라 하고 경계에 의지적으로 집중하면서 받아들이는 구나를 <능동성구나>라 하며, 판단분별하지 않고 그 경계 아이덴티티를 취하고 느끼는 의식 상태를 <경험성구나>라 하고 편의상 경계에 개념을 붙이는 경우는 <개념허용성구나>라 한다.

가를 느껴보고, 같은 방법으로 가치 부여를 할 때와 그냥 존재 부여만 할 때의 심리적인 차이를 느껴보고, 끝으로 존재 부여(개념화) 자체를 놓아버릴 때 어떤 심리가 체험되는가를 느껴본다.

- <옴>이나 <구나>의 삶이 참으로 바람직하리라는 것은 조금 공을 들이면 수긍되겠지만 온전히 잘 살아지지(체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있다→좋다→싶다...>의 삶이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 습관이 제거되는 정도만큼 <옴나(옴·구나)>적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 방편(기법)이 있겠지만 해공 조(解空十條)³⁾는 그 중 백미(白眉)일 수 있다.
- 세상을 개념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어린 왕자와 같은 소년이 한 시내를 구경하고 있을 때, 그 때의 소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 것 같은가? 그 상태가 <옴나>⁴⁾일 수 있다.
- 깨어있음(각성점두(覺性點頭), 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각성점두에 의미가 실릴수록 일체에 대한 실체화 심리가 사라진다. 구나 명상도 마찬가지다.
- <옴>이 해인삼매(海印三昧)라면, <구나>는 화엄삼매(華嚴三昧)라 할 수 있다.

3) 불원간에 출판된 책의 이름인데, 공(空)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 27개 정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4) <옴>과 <수동성구나>는 이론적으로는 이원화시켜 논의하지만 경험적으로는 엄격하게 이원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옴과 구나가 넘나드는 의식 상태를 일러 <옴나>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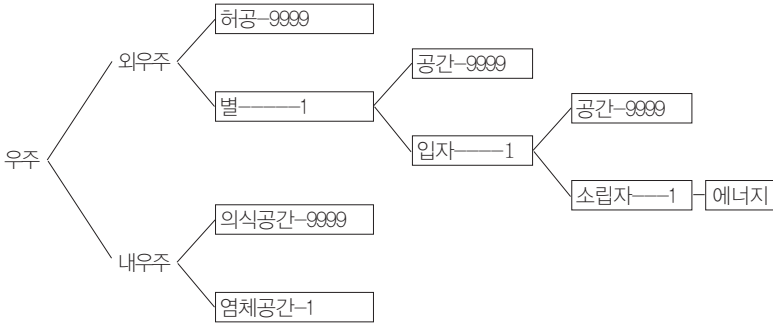
마음이 무언가에 머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
 머물되 집착의 흔적 없이 머물면 성자(聖者)요,
 집착의 흔적이 남으면 범부요, 중생이다

- 마음이 무언가에 머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다. 머물되 집착의 흔적이 없이 머물면 성자(聖者)요, 집착의 흔적이 남으면 범부요 중생이다. <옴>이나, <구나>나, <옴나> 내지는 돈망(頓忘) 등은 흔적 없이 머무는 방편이다.
- 석가모니가 그냥 있을 때 어떤 상태로 임재(臨在)할 것 같은가? 그 상태가 돈망이요 자성(自性)이다.
- 육경(六境: 색성향미촉법)에 대한 off를 단행했을 때 어떤 상태가 드러나겠는가? 이 때 드러나는 상태가 그것(돈망, 자성)이다.
- 노인 정체성: 나이 팔구십이 되었다고 보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베스트일가? 역시 돈망이다.
- 돈망을 철학적으로 정리한다면 공성상일여(空性相一如)가 적격이다. 공성(空性)과 성성(性性)과 상성(相性)과 공성상일여성(空性相一如性)이 철학적으로 수궁이 되는가 보라.
- 감(感): 칸트가 물자체를 감각인지과정으로 잡았을 때 느낌에 유념했더라면 돈망 도인이 되는 일은 쉬웠을 터인데 칸트는 어떡했을까 궁금하다. 그러나 아니었을 것 같다. 그것에 유념했더라면 표현 아

니치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존재를 존재이게 하라. 인간은 존재를 그지없이 죽인다.

- 빔(空聚)우주론



- 공(空) 안경을 쓰고 살아라.

- 개념(概念) 이전의 의식 상태를 견지하고 있을 때의 느낌(의식)을 음미한다.(음나)

- 돈망(頓忘)을 주제로 나누는 것이 돈망(頓忘)을 돕는다.

- 사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염체를) 지우는 것이다. <사실>이라는 알갱이가 남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어느 순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관념의 파편일 뿐이다. <사실 자체는 영원한 피안에 있을 뿐이다. Ding an Sich일 뿐이다. 물자체(物自體)일 뿐이요 초월자(超越者)일 뿐이다.>

- 공-필름을 가져오라.

- 할 일(B)을 다 하여 더 할 일이 없을 때 무엇을 하겠는가? 답: <그냥 존재할 일> <이대로 그냥 깨어서 존재하는 일>(A)
(A)로 존재하는 일이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겠는가?
(B)하는 것과 (A)하는 것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되는가?

	A	B	
1	×	○	말세
2	○	×	소승
3	○	○	대승

- 몸이 안 좋아 약방에 가서 약을 샀는데 그 약이 화타가 쓴 약재인가를 알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아니면 일단 먹고 낫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용타관(龍陀關)이 불조(佛祖)의 그것과 일치될까 안 될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도로한 소모전(消耗戰)이다. ‘용타 프로그램에 왔으니 용타의 그것을 일단 경험해보는 것이다.’가 전부이다. 그 결과 좋으면 취하고 아니면 버리면 된다. 용타관(龍陀關)을 뚫어라.
- 긍정과 초월: 긍정적 자아관(지족)으로 일단 행복하나 점점 자아의 무상(無常)성으로 괴멸의 불안에 휩싸인다. 이 불안을 초월하는 길 하나는 자아에 대한 인식(관점)을 바로 하는 것이다. 유(有)의 관점에 서면 괴멸의 고통은 당연한 것, 괴멸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유아(有我)의 관점을 무아(無我)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무아(공, 비아 등)관의 삶이다. 마찬가지로 법(法) 일반도 무상(無常)의 법칙으로 괴멸되어가는 법, 법(대상)에 집착하는 정도만큼 고통이 따른다. 역시 법공(法空)관의 삶이 요청된다. 아(我)도 공(空)하고 법(法)도 공(空)하다는 관조에 따라오는 공덕은 무엇이겠는

가? 과위(果位)인 열반(涅槃)이다. 열반(涅槃)의 장애물이 아(我)요 법(法)이니 아공관, 법공관을 조바라밀로 쓰는 것이다.

- 돈망을 굳이 삼수(三受)로 표현하면 사수(捨受)이다. 이 사수가 죽음보다 나올 것 없다는 인식이 확연해지면 바로 생사일여(生死一如)이다.


- 돈망

- (1) 문화 이전으로 그냥 산다.
- (2) <집착-시비-분별>을 하지 않는다.
- (3) 깨어있음을 안다.
- (4) 깨어있는 의식을 주시(의식)한다.

- 볼거리가 상림밖에 없는 함양에서는 상림만을 향한다. 만일 덕진 공원이 함양에 있다면 어떻겠는가? 마실 것이 콜라 밖에 없는 곳에서는 해로운 줄 알면서도 콜라만을 찾고 콜라에 중독되어 간다. 그런데 생수가 터져 나온다면 어떻겠는가?

- 우리들의 의식공간에 볼거리가 어떤 객체들밖에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객체를 즐기고 객체에 중독되어간다. 결과는 괴로운 세상에 윤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체의 객체가 사라진 상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볼거리가 또 하나 더 생긴 것이다. 보아도 보아도 질리지 않고 좋기만 하고 윤회를 하지 않는 <객체가 사라진 의식상태>가 볼거리인 것이다.

- 여기 성자(聖者) 한 분이 있다고 하자. 탐진치 삼독(貪瞋癡 三毒)이 사라지고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는 성자는 현재 어떤 상태로 있을 것 같은가? 그 상태가 이 상태 말고 무엇이 더 있을 것 같은가? 이 상태가 좋은 이유는 그대로 고요하기 때문이요, 업을 짓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 세상은 그냥 하나이다. 중생들은 자신의 주관성으로 세상을 표상한다. 표상된 세상을 세상이라 함에 의해 일파만파 늪 놀이를 한다. 바로 <분별-시비-집착-지옥-전쟁> 놀음이다. 이 때 요청되는 당위가 있다면 그 당위는 무엇일까? 늪 놀이의 첫 단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바로잡기가 돈망명상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용타스님은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주지, 성륜 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